

청소년들의 사회복지 관심과 성별차이

전 신 현*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사회복지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지할 나타내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남·녀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남·녀의 가치성향의 차이에서 찾고자 하였다. 성, 가치성향, 사회복지에의 관심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본 연구는 크게 구조적 이론과 성역할 사회화이론을 그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고려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복지정책에 보다 관심은 갖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여성이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는데에서 오는 평등주의 성향과 개혁주의 성향이 남성보다 강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성과는 다른 사회화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관계, 집합지향, 혹은 타지지향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지를 살펴보려 했다. 본 연구에서의 예측대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보다 지지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평등주의 성향이나 개혁주의 성향보다 여성들의 인간관계 중심적이고 집합지향적이며 타지지향적인 성향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결과란 보여 성역할 사회화 이론이 구조적 이론보다 우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I. 서론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중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의식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영역에 해당된다. 복지제도가 형성·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회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의식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한 나라의 복지정책은 사회성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원들의 의식에서 벗어난 어떠한 정책과 제도도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제도나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성원들의 복지의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까지 국내에서도 사회성원들의 복지의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영모, 1980, 1991; 한영수, 1989; 김상균, 1994; 김영란, 1995; 배득중, 1996). 이들 연구는 사회성원들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현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복지의 공급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바람직한 복지모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에 관심을 갖는다.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현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성원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성원들은 과연 사회복지정책을 얼마나 필요로 하며, 다른 정책보다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상이하다. 그 이유는 한 사회에 단일한 가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과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이며 사람들마다 가치, 이념과 태도는 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에의 관심과 지지도는 사회배경 특성별로 상이할 수 있다. 어떤 층은 사회복지정책을 선호하지만 다른 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의 관심에 있어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는 특히 사회계층 혹은 계급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다르다는 것에 주목했다(Feagin, 1975; Robinson and Bell, 1978; AuClaire, 1984; Hasenfeld and Rafferty, 1989; Paradakis, 1993). 그리고 이는 계층, 계급별로 구조적 모순의 인식이 다르고 이념과 가치지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층집단은 현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불평등을 극복하고 평등을 실현하며 개혁을 추구하려는 데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며 정부의 복지에 대한 투자확대에 보다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층도 기성층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흔히 청소년층은 사회에 비판적이고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이다(임희섭, 1994). 마찬가지로 복지관심에 있어 성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성은 사회복지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빈민, 노인, 장애인, 소수민족 등 소외층에 대한 경제지원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우호적이라고 기존의 연구결과는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득층인 남성과 달리 여성이 구조적 불평등을 보다 경험하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층에서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남·녀에 따라 다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논하고자 할 때에는 계층과 연령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가치성향의 차이 이외에도 다른 맥락의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남녀가 성역할 사회화 과정상의 차이로 인해 또 다른 차원의 가치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은 성취지향적이기 보다는 인간관계 중심적이고 집합주의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타지지향적인 방식으로 사회화됨으로 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에의 관심에 있어 계층별 차이에 주된 초점을 두었지 성차이를 논하는 것에는 미흡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어떠한 가치

성향 때문인지를 크게 구조론적 시각과 사회화이론의 시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에 있어 성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II. 이론적 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구조적 모순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사회복지가 구현하려는 가치를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려 한다는 데에 그 의견을 같이 한다. 구조적 불평등과 모순 속에서 인간다운 권리를 구현하고 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이 복지사회의 일차적인 관심인 것이다. 따라서 평등의 구현이나 사회개혁의식은 사회복지에의 관심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가치라고 지적되곤 한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에의 관심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치는 사회평등주의라고 지적된다(Feagin, 1975; Wilensky, 1975; McClosky and Zaller, 1984; Mishra, 1984; Hasenfeld and Rafferty, 1989; 김영란, 1995). 사회평등주의의 상반된 가치로 제시되는 경제적 개인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가치로서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 효율성 그리고 자유경쟁시장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보다는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어 정부의 복지지출에의 비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한다. 복지국가로의 확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낭비이며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복지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 가치로서 경제적 개인주의는 사람들 개개인의 복지가 각자 자신들의 몫이라 본다. 사회복지정책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 있게 될 경우 복지수혜자들은 정부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자생력을 잃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빈민층으로 남게 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정부는 수혜자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복지사회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평등이 무엇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다. 복지가치로서 사회평등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이는 사회적 배분을 성원들에게 동등히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의

재분배를 목표로 한다. 경제적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미국과는 달리 서유럽의 주요 이념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나 페비언사회주의는 평등을 포함한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정, 극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복지정책으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에 목적을 둔다. 민주주의 가치로서의 사회평등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사회성원들은 사회불평등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복지에의 관심은 사회개혁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개혁성향의 가치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개혁주의자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발달하여 사회의 균형을 깨고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복지국가가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사회주의 복지국가론을 주장하는 맑시스트들은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려 하지만 개혁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허용한도 내에서 혼합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의 개입을 통한 점진적인 복지사회의 구현을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은 그 의견을 달리한다. 서구사회에서 경제적 번영과 함께 등장한 복지제도는 많은 사회복지비 지출과 함께 경제성장의 둔화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실업율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에 신보수주의가 대두되게 되었는데 보수세력은 사회변화보다는 사회질서와 안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시장체제를 확고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이루기 위해 복지비 지출을 감축해야 하며 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반대하고 나선다.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 경제적 개인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성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사회복지에 덜 관심을 갖게 되며 자기책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되어 진다. 반면 사회평등과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과 자본주의 사회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평등을 구현하는 사회복지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또한 개인수준에서의 사회복지에의 관심은 개혁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Kluegel and Smith, 1986; Skitka and Tetlock, 1993; Miller, 1994). 보수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의 이념을 표방한다. 그리고 사회의 현상유지, 경제성장이나 부의 극대화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반면 개혁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사회의 구조적 모

순과 불평등을 보다 인식하며 사회불평등 속에서 고통을 받는 소외층에 대한 사회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경제성장 정책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경제적 개인주의와 사회평등의 가치, 그리고 보수성향과 개혁성향은 개인의 사회배경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언급된다(Feagin, 1975; Nilson, 1981; Kluegel and Smith, 1986; Lee et al., 1990). 흔히 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기득권층(중상층, 백인, 남성, 기성층)은 경제적 개인주의의 이념과 보수주의 이념을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그들은 자유경쟁을 선호하고 부의 축적과 급진적 성공을 중시한다. 그리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우려하여 복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출에 반대한다. 그들은 소수 빈민층의 생성이 개개인의 노력부족과 나태함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소외계층은 자유경쟁체제에서 자력으로 자신의 현 위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더구나 기득권층은 소외층에 대한 복지비용의 몫이 자신들에 있다는 것에 과도한 복지지출을 반대하고 나선다.

반면 하층, 흑인, 여성, 그리고 청소년층을 비롯한 젊은층은 소외계층의 생성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기득층과 달리 소외층은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인지하고, 따라서 소득의 분배, 평등한 권리의 보장이라는 평등주의 이념을 보다 지지하게 되며, 사회의 모순이 극복되기 위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Feldman, 1983; Kluegel and Smith, 1986; Hasenfeld and Rafferty, 1989). 따라서 그들은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정부는 사회복지에의 투자를 확대하여 불평등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있어 특히 계층·계급별 차이에 관심을 가졌고, 그 차이는 위에서 언급된 가치성향의 차이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Hasenfeld and Rafferty, 1989).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계층·계급별 차이외에도 성, 연령,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여성은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여성은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또한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조건을 가진 2차적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은 취업외에도 남성과 동일한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경험한다. 여성은 높은 지위에 접근하는데 구조적으로 제약과 불평등을 받고 있는 것이다(Baron and Bielby, 1985; Roos, 1985; Tienda et al., 1987; DiPrete and Soule, 1988). 이러한 이유로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은 남성보다는 사회평등과

사회개혁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해 남성보다는 여성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사회복지에의 관심의 차이를 논의할 때 구조적 접근과는 다른 맥락에서의 설명이 또한 가능하다. 그것은 남·녀가 사회화과정의 차이로 인해 서로 상이한 가치를 습득하게 되고 그러한 가치성향의 차이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의 사회화로 남성과는 달리 사회활동과 일의 성취·성공보다는 가사일이나 자녀양육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학습된다. 여성의 경우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잘 키우는 것이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기대되는 역할이며 가족성원을 보살피고 애정을 베푸는 존재로 인식된다.

유아기나 성장기에 여자 아이들은 누군가를 보살피고 선행을 함으로써 보상과 칭찬을 받게 되지만 남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과제를 완수했거나 학업의 성취를 이루었을 때 보상을 받는다. 부모는 남자 아이에게 학업성취나 앞으로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여자 아이에게는 학업과 직업에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는다. 남자 아이는 공격적이거나 성취지향적이며 자율적으로, 여자 아이들은 온순하고 애정적이며 의존적으로 키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역할 구분적 사회화의 결과로 성취와 성공가치를 중시하게 되는 남성은 남에 뒤지지 않으려는 경쟁의식이나 그에 따르는 개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성은 인간관계 중심적이고 타자지향적인 가치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Gillian, 1982; Eagly, 1987). 남성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는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도구적이며 실리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여성은 표현적이고 친밀하며 애정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여성은 또한 개인의 목표나 성취보다는 전체의 목표를 중시하고 성원간의 인간관계나 연대의식, 상호의존성을 중시하는 집합주의 성향을 지니게 된다(Bernard, 1975; Miller, 1976; Gillian, 1982; Stockard et al., 1988; Triandis et al., 1989). 여성들은 사회의 다른 성원들을 경쟁자로서 보다는 동일 구성원인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친밀한 애정적 인간관계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고 친절과 애정을 베푸는 타자지향적 성향을 갖는다고 한다. 남성은 지배의 속성이 강하지만 여성은 타자지향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능력이 남성보다는 뛰어나다고 한다. 남성은 개인주의적이며 경쟁지향적이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분이 강하고 남에게 무엇을 베풀거나 공유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한다. 반면 여

성은 남성보다 감정이입적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 고통을 더욱 이해한다고 한다(Davis, 1983; Eisenberg and Lennon, 1983; Eisenberg et al., 1989; Beutel and Marini, 1995). 이러한 연유로 여성은 남성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가능성도 높다고 언급되어 진다(Piliavin and Unger, 1985; Eagly and Crowley, 1986; Eisenberg et al., 1989; Piliavin and Charng, 1990).

남성들이 남을 돕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과 실리를 가져오고 또한 남을 도움으로 해서 자신에게 큰 손실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한 소위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Larrieu and Mussen, 1986; Dovidio et al., 1991). 그것은 남성들의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지향적인 가치성향과 연관된다. 그러나 남성과 달리 여성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감정이입을 느끼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남을 돕게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타자지향 성향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기존의 연구들도 밝히고 있다(Shapiro and Mahajan, 1986; Gillian et al., 1988; Beutel and Marini, 1995).

결국 서로 상이한 사회화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가치성향의 차이로 말미암아 여성은 남성보다 소외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이 입장에서 보면 남·녀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그것이 평등주의 의식과 개혁성향의 차이라고 보는 구조적 이론가들과는 달리 인간관계 중심의 집합성향과 타자지향적 성향의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III. 연구모델 및 방법

본 연구는 과연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복지정책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남·녀 차이의 주된 이유로 남·녀의 가치성향의 차이에 주목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가치성향은 평등주의 성향, 개혁성향, 그리고 인간관계중심 성향 및 타자지향 성향이다. 구조적 이론가들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평등을 구현하며 사회개혁을 통해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성향이 높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여성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 본다. 구조적 이론가에 따르면 그러한 가치성향의 차이로 인

해 성뿐만 아니라 계층별로도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여성이외에 하층도 평등과 개혁성향이 높음으로 해서 사회복지정책에 우호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성역할 사회화 이론가들의 입장에 따르면 여성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이유는 남성보다 인간관계 지향적이고 타치지향적인 성향을 갖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남·녀의 복지정책에의 관심의 차이는 어떤 가치성향 때문인지 경험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두 이론적 논의의 상대적 우위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6년 6월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1,01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변인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을 위해서는 우선 11가지의 주요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 사회나 정부가 그 문제를 얼마나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다. 11가지의 사회문제들은 1) 치안문제, 2) 교통문제, 3) 환경오염문제, 4) 사회복지문제¹⁾, 5) 국가방위문제, 6) 입시, 교육문제, 7) 경제성장, 8) 부정부패문제, 9) 빈부격차문제, 10) 이혼 등의 가치관 혼란문제, 11) 주택문제이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그 시급성을 “전혀 시급하지 않다”에서 “매우 시급하다”에 이르는 5점 척도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문제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고 최종적으로는 네번째 문항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시급성의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성향들로는 우선 구조적 이론에서의 논의를 통해 평등주의 성향과 개혁주의 성향을 고려하기로 한다. 평등주의 성향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질문 문항과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며 모든 일에 있어 각각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질문 문항 등 두 문항을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로 물어 보아 합산해서 사용하기로 한다(신뢰도를 위한 alpha 값은 .67). 개혁주의 성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문항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질문 문항에 5점 척도를 사용해 응답하도록 하였다.²⁾

또한 성역할 사회화 이론에서 제시되는 가치성향들로 우선 인간관계 중심의

1) 여기서 사회복지지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보험, 공적 부조 등과 같이 장애자, 빈민, 노인 등에 대한 사회보장문제를 지칭한다.

2) 개혁주의 성향을 위해 이 문항이외에 “내가 만약 투표를 한다면 보수정당 보다는 개혁·진보정당에 투표를 할 것이다”와 “우리 사회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개혁과 변화보다는 사회안정과 질서가 중요하다” 등이 있었으나 이들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한 문항만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집합성향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는 성공과 물질보다는 애정적이고 화목한 인간 관계를 강조하며 다른 사회성원들을 경쟁자로 보다는 같은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가치성향을 말한다. 이를 위해 “나의 일이나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화목하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뜻한 정을 주고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한 성원이다”, “우리 사회성원들은 누구나 모두 같이 잘 살아야 할 것이다” 등의 다섯 문항을 각각 5점 척도의 질문을 통해 사용하기로 한다(신뢰도를 위한 alpha 값은 .76).

또한 타자지향적 성향은 타자들, 특히 소외계층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지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가슴이 무척 아프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연민의 정을 느낀다”,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등의 네 문항을 각각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신뢰도를 위한 alpha 값은 .82).³⁾

한편 구조적 이론에서 평등주의의 상반되는 가치로 제시되는, 그리고 성역할 사회화이론에서는 남성들이 더 지낼 것으로 제시되는 성공, 경쟁, 물질주의 가치성향을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독립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경쟁 사회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여야 살아남는다”, “남과의 경쟁에서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공할수록 그리고 돈을 많이 벌수록 좋다”, “남에게는 이기고 볼 일이다” 등의 네 문항을 5점 척도를 통해 질문하기로 한다(신뢰도를 위한 alpha 값은 .73).

가치성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배경 변인들로 성별 외에 응답자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수입 그리고 자신 가족의 경제 생활수준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의 주관적으로 평가된 경제수준 등을 사용하기로 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최종학력을 국졸에서 대학원졸 이상에 이르는 항목에 응답하도록 했으며, 가족수입은 3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상에 이르는 아홉 항목에 응답하도록 했다. 주관적으로 평가된 경제수준은 하, 중하, 중, 중상, 상 등 다섯 항목에 응답하게 하였다.

3) 이 문항들은 사실 정확하게 타자지향적 성향을 대표하는 문항은 아니다. 설문지에서는 타자지향적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고려되는 이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IV.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어떠한 가치성향이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또한 가치성향이나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해 성을 포함한 사회배경 변인들과 가치성향들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그 연관성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우선 변인들의 기술적 분석결과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1가지 사회문제 각각에 대해 정부나 사회가 얼마나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5점 만점 기준에 1) 환경오염문제, 2) 입시·교육문제, 3) 치안문제, 4) 교통문제, 5) 부정부패문제, 6) 사회복지문제, 7) 빈부격차문제, 8) 경제성장, 9) 이혼 등의 가치관혼란문제, 10) 국가방위문제, 11) 주택문제 순으로 나타나 환경오염문제 영역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책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주관심 영역인 입시문제나 학원폭력 등의 치안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사회복지문제 영역은 11가지 영역 중 여섯 번째 순위를 나타냈다.

한편 이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환경오염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영역이라는 점에서는 남·녀 모두 일치하고 여성의 경우는 전체순위의 결과와 크

표 1: 사회문제에 대한 시급성 평가 결과

	총	남	여
1. 환경오염문제	4.683	4.658	4.707
2. 입시교육문제	4.548	4.442	4.649
3. 치안문제	4.448	4.420	4.575
4. 교통문제	4.432	4.418	4.446
5. 부정부패문제	4.421	4.444	4.398
6. 사회복지문제	4.297	4.224	4.367
7. 빈부격차문제	4.131	4.142	4.121
8. 경제성장	4.051	4.022	4.078
9. 가치관혼란문제	3.835	3.852	3.819
10. 국가방위문제	3.825	3.969	3.687
11. 주택문제	3.800	3.888	3.718

게 다를 바가 없으나 남성은 특히 부정부패 문제에 우위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영역별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점수가 높은 영역은 부정부패문제, 국가방위문제, 주택문제, 가치관혼란문제, 빈부격차문제 등이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그 점수에서 높은 영역은 사회복지문제를 비롯한 나머지 영역 즉, 환경오염문제, 입시교육문제, 치안문제, 교통문제, 경제성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위의 11개 사회문제 영역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우선 순위를 고르는 개방형 질문문항에 있어서는 표 2에서 제시하듯이 응답자 중 301명이 입시교육문제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관심의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오염문제(218명), 치안문제(187명), 사회복지문제(65명), 부정부패문제(55명), 국가방위문제(48명), 교통문제(45명), 빈부격차문제(30명), 경제성장(21명), 가치관혼란문제(17명), 주택문제(9명) 등의 순으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입시교육문제, 환경오염문제, 치안문제, 국가방위문제 순이었고, 여성은 입시교육문제, 환경오염문제, 치안문제, 사회복지문제 순이었다. 이 결과를 표 2와 비교해 보면 우선 순위별로는 남·녀 청소년 모두 입시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사회복지문제가 네 번째의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사회복지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사회문제에 대한 시급성 우선순위 결과

	단위: 명		
	총	남	여
1. 입시교육문제	301	122	179
2. 환경오염문제	218	114	104
3. 치안문제	187	107	80
4. 사회복지문제	65	24	41
5. 부정부패문제	55	23	32
6. 국가방위문제	48	32	18
7. 교통문제	45	18	27
8. 빈부격차문제	30	17	13
9. 경제성장	21	12	9
10. 가치관혼란문제	17	9	8
11. 주택문제	9	6	3
무응답	-	8	6
총	1,010	492	518

본 연구에서 사용할 변인들의 기술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010명 중 여성이 518명으로 다소 많았고, 응답자의 연령은 16세에서 19세로 분포되었으며 평균연령은 대략 17세였다.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과 대졸이 대부분이었으나 고졸이 약간 많았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어머니의 교육수준보다 다소 높았다. 가족의 수입은 대략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제수준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중층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응답자들은 평등의 실현과 개혁을 원하며 특히 많은 응답자들은 현 사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많은 응답자가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타자관계 지향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공, 경쟁성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면 많은 대다수의 응답자가 사회복지문제의 해결을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성	별	.51	.50	0~ 1
연	령	17.38	.69	16~19
부	교 육	3.35	.84	1~ 5
모	교 육	2.96	.85	1~ 5
가	족 수 입	4.18	1.21	1~ 5
경	제 수 준	3.24	.70	1~ 6
평	등 주 의	7.22	1.70	2~10
개	혁 주 의	4.03	.74	1~ 5
인	간 관 계	21.40	2.49	10~25
타	자 지 향	15.14	2.57	4~20
경	쟁 주 의	13.73	3.06	4~20
복	지 관 심	4.30	.72	1~ 5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연구모델에 대한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성별을 포함한 사회배경 변인들이 가치성향 변인들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알기위해 각각의 가치성향들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성향들은 다른 사회배경 변인들보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우선 여성은 남성보다 평등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개혁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조적으로 불평등과 소외속에 있는 사람들이 평등과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보는 구조적 이론가들의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주관적으로 인지한 경제수준과 개혁성향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 낮은 계층의 청소년들이 보다 개혁을 원한다는 결과를 보여, 이 또한 구조적 이론가들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혁성향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가족수입과 같은 다른 계층관련 변인들과는 뚜렷한 관계를 나타내지 못해 부분적으로 구조적 논의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제수준을 포함한 계층 관련 변인들과 평등주의 성향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과 가치성향간에도 뚜렷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라는 동일·유사한 연령층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성역할 이론가들의 주장과 같이 여성은 남성보다 인간관계 중심적이고 집합주의 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타자지향적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쟁과 성공주의 성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그 점

표 4: 연구모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비표준화된 회귀계수)

독립변인	종속변인					
	평등주의	개혁주의	인간관계	타자지향	경쟁주의	복지관심
성별	.355**	.111*	.353*	.520**	.194	.105*
연령	-.117	.065	.024	.025	-.064	.072*
부교육	.144	-.025	.056	-.096	-.086	.018
모교육	-.089	.036	.004	.024	.409*	-.034
가족수입	-.023	.017	.041	-.134	.107	.017
경제수준	.007	-.079*	-.045	.240	.062	-.054
평등주의						.037**
개혁주의						.012
인간관계						.039***
타자지향						.063***
경쟁주의						-.004
R-Square	.018	.014	.006	.016	.017	.131

*=p<.05 **=p<.01 ***=p<.001

수에서 높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회배경 변인들 및 가치성향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에 제시되었듯이 이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독립변인들로는 사회배경 변인들 중 성별과 연령, 그리고 가치성향들로는 평등주의 성향, 인간관계 성향, 타자지향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영향력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어 여성이 남성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영향력은 다소 약해 성별은 가치성향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또한 연령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회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본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약했다.

또한 본 결과는 개혁주의 성향의 차이가 사회복지정책의 시급성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해 구조적 이론가들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으나 평등주의 성향이 강한 청소년일수록 사회복지정책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나타내 부분적으로 구조적 이론가들의 논의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인간관계 중심적이고 타자지향적인 학생들이 사회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성역할 사회화 이론가들의 논의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5의 가치성향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표준화된 계수를 살펴보면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구조적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평등주의 성향보다도 인간관계지향 성향이나 타자지향적 성향이 사회복지정책의 관심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이론가들의 논의가 다소 우세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타자지향적 성향의 영향력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직접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평등주의 성향 및 인간관계 중심적 그리고 타자지향적 성향이 높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표 5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값을 통해 성의 가치성향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가치성향의 복지관심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녀의 사회복지정책의 관심의 차이는 타자지향적 성향의 차이에 의해 크게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은 남성과 달리 타자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는 성향을 가짐으로 해서 사회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표 5: 연구모델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표준화된 회귀계수)

독립변인	종속변인					
	평등주의	개혁주의	인간관계	타자지향	경쟁주의	복지관심
성별	.105	0.77	.071	.103	.032	.073
연령	-.048	.062	.007	.007	-.014	.068
부모교육	.071	-.028	.019	-.031	-.023	.021
모교교육	-.044	.041	.001	.008	.113	-.039
가족수입	-.017	.028	.020	-.063	.042	.028
경제수준	.003	-.077	-0.13	.068	.014	-.053
평등주의						.086
개혁주의						.012
인간관계						.133
타자지향						.221
경쟁주의						-.019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 연구에 있어서 사회복지의식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과연 청소년들은 정부와 사회의 사회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지를 나타내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사회집단 및 계층별로 그 지지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낼 것이라 보았는데 이는 그들이 가치와 이념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특히 성별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의 차이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남·녀의 가치성향의 차이에서 찾고자 하였다.

성, 가치성향, 사회복지에의 관심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 본 연구는 크게 구조적 이론과 성역할 사회화이론을 그 논의의 주요 배경으로 고려해 과연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복지정책에 보다 관심을 갖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여성이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에서 오는 평등주의 성향과 개혁주의 성향이 남성보다 강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남성과는 다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인간관계, 집합지향, 혹은 타자지향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지를 살펴보려 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에 어떤 성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며 또한 두 이론 중 어떤 이론이 보다 우세한지를 검토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의 예측대로 여성과 남성은 가치성향의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보다 지지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은 성역할 사회화의 차이에 따른 가치성향의 차이로 사회복지정책에 보다 관심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즉 구조적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여성들의 평등주의 성향이나 개혁주의 성향보다 여성들의 인간관계 중심적이고 집합지향적이며 타자지향적인 성향 때문에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적 이론가들의 논의대로라면 성별 이외에 계층에 따라서도 평등과 개혁성향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에의 관심에 차이가 나타나야 하는데, 본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는 못했다.

본 결과는 성역할 사회화이론이 구조적이론보다 우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사실 두 이론적 논의는 상반된 논의라기 보다는 연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은 사회불평등을 경험하는 또 다른 소외층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외층인 빈민, 노인, 장애인 등에 보다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소외층을 같은 성원이라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과 고통을 이해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회의 실현에 있어 사회성원들의 의식과 가치성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성원들이 서로를 위하고 타인을 생각하며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은 복지사회의 발전에 있어 그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 일반화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의 연구는 성인외에도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에의 관심은 계층보다는 성별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하게 될 때, 이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김영모(1980),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각.
 김영모(1991), “한국인의 복지의식재론,” 「사회정책연구」, 제13집.

- 김상균(1994), "한국인의 복지의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권 1호.
- 김영란(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배득중(1996), "한국인의 복지마인드에 관한 연구," 『복지정책 의식과 제도』, 한림과 학원편 소화.
- 임희섭(1994), "청년문화와 사회의식,"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
- 한영수(1989), "한국인의 복지의식과 복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법문사.
- AuClaire, P. A.(1984), "Public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Social Work* 29, pp. 139-45.
- Baron, J. N. and W. T. Bielby(1985), "Organizational Barriers to Gender Inequality: Sex Segregation of Jobs and Opportunities," *Gender and the Life Course*, edited by A. S. Rossi. New York: Aldine.
- Bernard, J.(1975), *Women, Wives and Mothers: Values and Options*, Chicago: Aldine.
- Beutel, A. M. and M. M. Marini(1995), "Gender and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pp. 436-48.
- Davis, M. H.(1983),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Empathy on Emotional Reactions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51: pp. 167-84.
- DiPrete, T. A. and W. T. Soule(1988), "Gender and Promotion in Segmented Job Ladder Syst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pp. 26-40.
- Dovido, J. F., J. A. Piliavin, S.L. Gaertner, D.A. Schroeder and R.C. Clark(1991), "The Arousal: Cost-Reward Model and the Process of Intervention," *Prosocial Behavior*, edited by M.S. Clark. NewBury Park: Sage.
- Eagly, A. H.(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 Role Interpretation*, Hillside, NJ: Erlbaum.
- Eagly, A. H. and M. Crowley(1986), "Gender and Helping Behavior," *Psychological Bullutin* 100: pp. 283-308.
- Eisenberg, N. and R. Lennon(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utin* 94, pp. 100-31.
- Eisenberg, N., R. Fabes and C. Shea(1989),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and Prosocial Moral Reasoning," *Who Cares? Theory, Research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Ethic Care*, edited by M.M. Brabeck. New York: Praeger.
- Feagin, J. R.(1975), *Subordinating the Poor: Welfare and American Beliefs*, Prentice-Hall.
- Feldman, S.(1983), "Economic Individualism and American Public Opinion," *American Politics Quarterly* 11, pp. 3-29.

- Gillian, C.(1982), *a Different Vo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an, C., J. V. Ward and J. M. Taylor(1988), *Mapping the Moral Domain*,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senfeld, Y. and J. A. Rafferty(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 Kluegel, J. R. and E. R. Smith(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New York: Aldine.
- Larriue, J. and P. Mussen(1986), "Some Personality and Motivational Correlates of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7, pp. 529-42.
- Lee, B. A., S. H. Jones and D. W. Lewis(1990), "Public Beliefs about the Causes of Homelessness," *Social Forces* 69, pp. 253-65.
- McClosky, H. and J. Zaller(1984), *The American Ethos: Public Attitudes Toward Capitalism and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 Miller, J. B.(1976),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Boston: Beacon Press.
- Miller, A. S.(1994), "Dynamic Indicators of Self-Perceived Conservatism," *Sociological Quarterly* 35, pp. 175-82.
- Mishra, R.(1984), *The Welfare State in Crisis*, St. Martin's.
- Nilson, L. B.(1981), "Reconsidering Ideological Lines: Belief about Poverty in America," *Sociological Quarterly* 22, pp. 531-48.
- Paradakis, E.(1993), "Class Interests, Class Politics and Welfare State Regim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 pp. 249-70.
- Piliavin, J. A. and R. K. Unger(1985), "The Helpful but Helpless Female: Myth or Reality?," *Women, Gender and Social Psychology*, edited by V. O'Leary, R. K. Unger and B. S. Wallstone. Hillsdale, NJ: Erlbaum.
- Piliavin, J. A. and H. W. Charng(1990), "Altruism: A Review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pp. 27-65.
- Robinson, R. V. and W. Bell(1978), "Equality, Success and Social Justice in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 pp. 125-43.
- Roos, P. A.(1985), *Gender and Work*,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hapiro, R. Y. and H. Mahajan(1986), "Gender Differences in Policy Preferences," *Public Opinion Quarterly* 50, pp. 42-61.
- Skitka, L. J. and P. E. Tetlock(1993), "Providing Public Assistance: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Underlying Liberal and Conservative Policy Pre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pp. 1205-23.

-
- Stockard, J., A. J. Van De Kragt and P. J. Dodge(1988), "Gender Role and Behavior in Social Dilemmas: Are There Sex Differences in Cooperation and in its Justific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 pp. 154-63.
- Tienda, M., S. A. Smith and V. Ortiz(1987), "Industrial Restructuring Gender Segregation and Sex Differences in Earning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pp. 195-210.
- Triandis, H. C., R. Bontempo, M. J. Villareal, M. Asai and N. Lucca(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Group Re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 323-38.
- Wilensky, H. L.(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Youth's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and Gender Differences

Jun Shin-Hyun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youths are concerned with and support social welfare policy. It has especially attention to gender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policy and proposes that it can be a func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values. This study considers two theories, structural theory and sex-role socialization theory, in explaining gender differences of values and supports for social welfare policy and tests their relative efficacy. This study tests two broad hypotheses: 1) whether female are more likely to endorse the ideology of social equality and liberalism and, therefore, express support for social welfare policy or 2) Whether females are more concerned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have more collectivist and other-oriented values and, therefore, more likely to support social welfare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females are more likely to support social welfare policy because they have stronger other-oriented values as sex-role socialization theory posits.